

제18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1. 01. 11. [월] 09:30 ~ 11:40
장 소	현대해상 8층, 회의실
참 석 자	위원장 등 9명 [재적인원 11명 중 9명 참석]
주요내용	○ 공론조사(시민참여단) 행사(숙의토론회) 개최 확정 ○ 공론조사(시민참여단) 사전교육 영상(4개) 및 자료집 확정 ○ 공론조사(시민참여단) 2차, 3차 조사 내용 확정
회의결과	○ 공론조사(시민참여단) 행사(숙의토론회) 개최 확정 <사전교육 및 숙의 토론회 통합 개최> ▸ 일 정 : 2021. 1. 23.(토) 09:00 ~ 18:30 ▸ 장 소 : 전일고등학교 내 13개 교실 활용 ▸ 진행방식 : 직접대면(분임토의) 및 온라인 비대면*(전체토의) 병행 (*영상회의 시스템(Zoom) 활용하여 비대면 진행) ※ 시민참여단 120명 모집 완료 (불참 시 일부 인원수 조정 가능) ○ 공론조사(시민참여단) 사전교육 영상(4개) 및 자료집 확정 - 시민참여단 사전교육을 위한 영상 확정 (공론화의 이해, 의제 및 쟁점, 워크숍 결과 발표 등) ※ 금주(14일) 내 자료집 및 교육 영상 배포 예정 ○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2차, 3차 조사 내용 확정

제18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 개 회

발 언 자	발언 내용
간사	- 안녕하십니까.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간사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금일 회의 18차 시민공론화위원회입니다. - 현재 총 재적인원 열한 분이신데 여덟 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 폭설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문제로 좀 참석이 부득이하게 어려우신 분들은 의견을 따로 전해받았고요. 그다음에 영상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운영 규정 8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제18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들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진행 상황 보고, 그동안 만들었던 사전교육 동영상 대표 자료를 검토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23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집 검토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럼 먼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상황 보고

전주시 관계자	- 진행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회의 이후 시청 홈페이지 시민의견 수렴 사항으로 추가로 한 건 더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78개가 게시되었고요. 내용은 개발을 어떻게 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시민참여단에 대한 참석 여부 조사 결과, 일정 변동에 따라 일부 미달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이번 주까지 인원을 최대한 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모집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했고요. 장소 등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시죠.
전주시 관계자	- 저번 회의를 마친 후에 저희가 바로 김상규 대표랑 용역 수행기관과 함께 전일고등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별관 건물이 4층짜리 한 동인데요. - 그 4층짜리 한 동 각각 층별로 보면 2층부터 2개 공간 3개 공간 4개 공간 해서 그렇게 해서 총 13개 공간, 그리고 1층에도 최종 본부 공간까지 포함해서 13개 공간 교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 지금 다만 거기에 이제 인터넷이나 그런 부분들은 확충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만 시청각으로 저희가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빔과 스크린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또한 TV까지 같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스크린을 하든 티비를 쓰거든 그 부분은 다 연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 그리고 저희가 리허설은 최종 이제 이번 다음 주 19일 화요일에 학교 측에서는 학교 운영 관계로 오후 3시 반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협조를 받아서 그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최종 리허설을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일단 저기 13개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합쳐서 포함된 겁니까? - 그러면 저희들이 공론화위원들이 여기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앉아서 그다음에 또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 데스크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관계자	- 학교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회의에 참여하시는 시민분들은 교실 책상을 이용해서 배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 측에 지금 협조를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다른 공간들이 좀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넉넉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일날 3시 반부터 리허설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혹시 19일에 다음 주 화요일 연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들도 그 리허설을 하는데 한번 가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혹시 19일 오후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혹시 이 지역에 저도 그날 시간되면 한번 오겠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19일 오후에 가능하신 분 4시 정도 전일고등학교에 3시 반부터 준비를 해서 4시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19일날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리허설을 하는데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저희들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도 부탁 좀 드리고 19일날 정확한 정해졌지만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할 사항들이 있나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됐습니까? - 그러면 진행 사항 다음에 이제 저희가 카톡에도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사전교육 동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제가 생각보다는 훨씬 좋게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저걸 보는데 얼마나 걸리죠?

#. 사전 교육 동영상 논의

전주시 관계자	- 4개 영상인데요. 저번에 한 번 저희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것은 통합본으로 40분짜리 이미 그거는 한번 청취를 하신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3개 지금 하나는 ○○○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공론화 이해 그게 20분이고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참여해서 만들어주신 공론화 의제와 쟁점사항 그게 16분 그리고 이제 ○○○ 위원님께서 이제 큐시트나 그런 부분 협조를 해 주셔서 제가 그 바탕으로 제작한 4분짜리 그래서 3개의 동영상을 40분으로 맞췄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혹시 아주 간단한 스킵해서라도 중간중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겠습니까?
<동영상 시청 - 공론화의 이해(○○○ 위원)> <동영상 시청 - 의제와 쟁점사항(○○○ 위원장, ○○○ 간사)>	
○○○ 위원	- 자막을 넣어주셔야 할 거 같아요.
○○○ 위원	- 이것은 촬영한 지 얼마 안되서 컷 편집만 한 것입니다. - 전체적으로 이거는 피티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피티에 밀줄이 따라 다닌다거나 내용하고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은 핵심적인 거는 자막으로 하는 것이니까 자막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 위원	- 상단에 자막을 넣으면 어때요? 상단이 너무 험하네요.
○○○ 위원	- 그니까 아까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피티 자료는 핵심키워드 듣는 걸로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자막이 들어가면 좋을거 같네요.
<동영상 시청 - 시나리오워크숍 결과 발표(각 시나리오별 시민대표)>	
○○○ 위원	- 발표자 분들 이름이 들어가줘야 합니다. 이게 그래야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무엇을 발표하는가하고 발표자 이름정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그리고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서니까. 어쨌든 제가 보니까 역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 훨씬 낫다 잘했다. - 또 추가적으로 더 하기 위한 몇가지만 첨가하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 그러면 저게 전체 다 어떻게 참여자들에게 나눠 드릴겁니까? 어떻게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부 다?

전주시 관계자	- 저희가 어차피 링크를 동영상 링크를 해드릴 겁니다. - 시청 홈페이지 거기 유튜브 시청 홈페이지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같이 올려서 거기서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문자 발송 최종 할 겁니다.
○○○ 위원	- 저희가 시에다가 부탁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4분 영상 짜리 같은 경우는 그 과정들이 설명이 됐잖아요. - 그걸 제일 앞으로 배치를 하고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들어와서 우리 공론화 과정이 투명하게 내지는 깊이 있게 약간 숙의하고 토론해서 한 과정이라는 부분들을 좀 시민들한테 알려야겠습니다.
○○○ 위원	- 올리고 나서 보도자료를 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숙의 참여단이 그걸 봐야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런 부분은 내용을 잘 정리했으니까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도 보실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우리가 이렇게 올렸다는 것을 보도자료 부탁드립니다.
전주시 관계자	- 제가 지금 계획을 오늘 공론화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같이 담아서 보도자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늘 안봤지만 지난 번에 각 시나리오 별로 얘기한 것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훨씬 좋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오늘 한 것 중에 2차 조사, 3차 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 위원	- 그전에 간담회 세부 프로그램이나 하고 최종이야기 했으면 좋겠는데 모더레이터 관련해서 참석을 같이 하지 않으셨나요? - 뭐가 변화되었고 그쪽에 준비과정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협의되었는지 실제로 그분들이 현장에서 진행하시는데 잘 준비가 되었는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용역 수행기관	- 일단은 딱 다른 일정이 좀 있으셔서 불가피하게 못 오셨는데 일단 프로그램은 제가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공론화 세부 일정 논의	
용역 수행기관	- 일단 이 프로그램은 진행하실 모더레이터분과 공유가 최종 완료된 버전이고요. 혹시나 불가피해 수정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그런데 크게 문제는 없을거고 일단은 8시부터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8시부터 오셔서 9시까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오시면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각 분반별로 일단 사전에 분반이 정해지고 나서 각 분반별로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오프라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개회식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다 분반별로 참석을 하시고 본부에서 전달드리면 줌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례, 위원장님 말씀 환영사, 시민참여단 위촉장 수여는 모든 분이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분들만 따로 본부에 오셔서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그다음에는 숙의 토론회 안내 및 일정 소개입니다. 이때부터 모뎀레이터 사회자분께서 진행하실 겁니다. - 그래서 한 10분가량 숙의 토론회 개요와 세부 일정 이것도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각 분반별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첫 번째 1세션부터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 발표를 10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한방직 부지 현황 및 공론화 의제, 이것도 줌 온라인입니다. - 그리고 분임토의는 각각 소그룹별로 따로 오프라인을 진행합니다. 60분 동안 주로 인사 나누기와 의견 나누기 질의취합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본부와 교감해서 할 수 있을지 질의를 취합하는 과정입니다. - 잠시 휴식 시간 갖고 질의응답 관련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관한 전반적인 관점의 질의응답 요구를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	-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좀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모든 방에 프로젝트하고 스크린이 설치가 되나요?
○○○ 위원	- 일단 화면은 프로젝트로 보게 되고요. 카메라는 전체적인 화면만 잡힐 거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 위원	- 본부에서 지금 취합을 해서 하나가 띄어지는데 그 장면을 회의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소그룹이 끝났어요. 끝나서 본부가 취합해서 우리 의견들 여기서 누가 발표하는 것들이 본부에 나올 건데 우리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보냐는 거예요. - 휴대폰으로 본다는 얘기인가요?
용역 수행기관	- 프로젝트로 봅니다. - 서로 소통하는 건 줌으로 하지만 화면은 다 큰 화면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 위원	- 화상회의를 할 때 자료 화면을 띄우거나 발언자를 화면에 띄워주는 컨트롤타워는 따로 있는 거죠? 그 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 수행기관	- 일단은 학교라서 원활하게 되지는 않을 텐데 각 반별로 저희가 조정할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을 예정입니다.

○○○ 위원	- 그건 뭐 하는데 전체 총괄로 예를 들면 A조에서 발언을 할 때는 A조 화면을 띄워줘야 하고 자료 화면 나갈 때는 자료는 그걸 누가 세팅 컨트롤합니까?
전주시 관계자	- 본부실에서 그 부분은 부에 대한 컨트롤을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용역 수행기관	- 그리고 점심식사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시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업체는 알아봤고 일단은 가능하면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현장에서 취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 2세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세션에 들어가면 시나리오 발표, 사전에 준비하신 대표분들이 오셔서 본부에서 각각 3개 시나리오별로 15분가량 발표할 예정입니다. - 그다음에 분임토의를 따로 오프라인 토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별로 장단점 그 질문을 어떤 걸 할지 취합 이런 걸 하고 나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나리오 대해 토의를 하고 3개 시나리오 별로 질의응답을 대표 발의자께서 소통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해서든 본부랑 각 소그룹별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그다음에 3세션을 들어가면 또 각자 오프라인 분임 토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적용 시 기대 효과와 한계 및 보안점 각각 조별로 토의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 그다음에 질의응답 본부와 각 분반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분임토의가 마지막에 4세션으로 들어가면 조별 토의를 한 20분가량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분임토의하고 끝나고 나면 오프라인으로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각 반별로 저희가 진행해서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마무리 시간 되면 본부에서 인정서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 일단 이것도 대표자분 정해서 다 알아서 잘 모이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대표자만 하고 소감 나누기에는 본부와 각 분반 간에 모든 사람이 다 하기엔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발제자를 정하는 등 이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	- 그다음에 뭐 잘 준비하겠지만 도시락도 중요하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수행기관	- 저희가 지금 학교라서 식수가 밖에 각 층마다 있는데 물이 미지근한 물이라서 저희가 별도의 더운 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실마다 하나씩 넣을 예정입니다. - 도시락은 바로 전에 밥과 반찬을 따로 구분해서 밥이 식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리고 위촉장하고 인증서 이렇게 잘 준비를, 어느 분한테 줄지 또 선정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아무튼 19일 날 이걸 한번 진행을 해보신다니까 그때 하나하나 좀 잘 체크해서 저희도 참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결국에 이제 운영에 대한 세부 일정이나 이런 건 잘 배치해놨는데 얼마만큼 뭐 답변 등 이게 컴팩트하게 진행하느냐 굉장히 사실은 시간이 적을 수도 있고 사회자들에게 보기에는 일단 시간이 부족한 게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모더레이터분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1세션의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상황에 관한 전반적 관점에 질의응답, 그전에 질의를 또 치합하고 이런 거잖아요. -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어쨌든 뭐 사전에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 같은 이미 질문이 풍성하게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질의를 어떻게든 사전에 치입하고 과정에 치입해서 이걸 빨리 분류해서 답변할 거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휴식 시간에 치입해서 누가 답변할까 이야기하기 힘든 준비 과정이 이런 문제가 그 뒤에도 시나리오 3개에 대한 발표와 토론 그다음에 질의응답 이 과정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 이 부분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짧게 집중적으로 가져갈 대책이 있는지 검토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용역 수행기관	- 사전에 저희가 모더레이터들 교육이 따로 있을 예정입니다. -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누가 이렇게 사전에 교육할 때 시간을 정해서 빨리빨리 치합하고 정리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사전 교육은 있습니다.
○○○ 위원	- 일단 예를 들어서 3개 시나리오 계획 영상 같은 경우도 보면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발표자가 답변을 하는 겁니까?
○○○ 위원	- 이거는 발표자가 답변을 해야겠죠.
용역 수행기관	- 일단은 발표자가 답변을 하는데 혹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공론화 위원회가 보충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이거는 주로 일단 원칙이 발표자가 답변해야 할 것 같아요.
○○○ 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저는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세 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질문이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고 거기서 많이 나와 있는 질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균등하게 나눈다든지 답변 시간도 나뉘야 되고 그 안에 공통적인 중복적인 질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예상 범위 안에 들어오는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 그러니까 오늘 얘기되었던 것을 우리 진행하는 측에다가 물론 경험이 있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우려되는 사항 아까 질의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몰린다든지 하는 그 배분 또 공통적 질의사항 그런 것은 아마 지난번 보니까 우리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잘 이렇게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얘기를 좀 전해주기 바라고요. - 참고로 저희가 우리 간사님하고 동영상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 한 가지는 배포될 자료집에 이 내용이 있으니 자료집을 꼭 좀 읽어보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 우리의 오늘 설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미리 저희들한테 알려주든지 조금 알려달라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 혹시 다른 동영상에도 그런 멘트가 필요하면 조금 미리 준비를 해 오시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정도는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 그러니까 동영상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쪽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하나는 연관 검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대표자가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준비를 해달라 하는 멘트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부탁을 드릴게요. - 그리고 또 하나의 여기서 2차 조사를 미리 조금 보내서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이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 여기에 와서 받을 게 아니라 미리 좀 조사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당일날 2차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도 좋을까요?
○○○ 위원	- 자료집을 언제 줍니까? 이 참여자들에게 줄거 아닙니까. 미리 이걸 주죠? - 그걸 전달을 합니까 우편으로 보냅니까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전주시 관계자	- 전자파일로는 당연히 발송을 하고요. - 오프라인으로는 우편으로 배송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잠깐만 일정대로라면 이번주 말까지는 시민참여단이 확정될 것 아닙니까. 확정돼야죠. - 그러면 다음 주 초에 시민참여단에게 확정되어지니까 그분들에게 자료도 주고 이것도 배포되겠죠. 그렇게 확정되어진 다음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초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 위원	- 저는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이분들이 어떻게든 시험지처럼 설문지가 들어갔을 때는 설문조사하다가 자료집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당일날 와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이거 막 답변하고 이게 좀 설문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같이 동봉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정 이게 100% 안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일날 하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이 설문 답변을 할 때 이 내용을 보고 설문을, 답은 여기 있거든요? 면적이거나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설문 응답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정확한 건지 아니면 이걸 안 보고 응답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위원장	- 원칙으로는 안 보고 해야죠.
용역 수행기관	- 원래 취지는 저희가 무지의 상태에서 설문을 받고 과연 변화가 속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생겼는지를 보는 게 원래 취지였습니다.
○○○ 위원	-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한 백지 상태에서 이걸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맞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합니다. 복잡한 일 아니고 영상 다 만들었잖아요. -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하나 옛날 거 그냥 짧게 해서 가자 이렇게 해서 준비했으니까 가능한데 저 생각은 자료집 가기 전에 받아야 하고요. - 어떻게 받을 거냐고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저도 저희들도 구글 폼으로 해서 설문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능하신 분들은 구글 폼으로 해서 이걸 팔아가시고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폼 양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구글 폼으로 가고 연령대로 보면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 이걸 저희가 알바생 3명만 쓰면 되요. 알바생 세 분한테 10분씩만 하루에 10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직접 방문해서 이거 받아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틀 걸릴 수도 있고요. - 그래서 알바 몇 분만 쓰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구글 폼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젊은 분들은 그렇게 해서 받고요. - 나머지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가는 거고 그때 자료집 나오면 저는 그때 같이 설문을 먼저 받고 나서 전해드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오시기만 해도 이게 사전에 학습이라든지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도 계속 안내할 때마다 자료집은 확인하셨습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어디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알려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할 겸 저는 이 자료집 가기 전에 이것저것 준비해서 가면 어차피 한 일주일 후에 빨라야 일주일 후에나 갈 수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저는 구글폼으로 인터넷 의견수렴 그다음에 이게 어려운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전달도 할 겸 직접 대면 면접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님 또 하실 얘기 있으세요.

○○○ 위원	- 취지대로 이게 어차피 자료집이 가고 그날 아침에 나와서 오는지 스케줄대로 하는 게 절차라든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을 간소화하려면 이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	- 미리 보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왜냐하면 어떤 사실관계를 책을 보고 알아서 하는 것이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 어차피 정확한 내용을 책을 보고 해서 이해를 해서 이렇게 사전에 2차 때하고 3차 때 어떻다는 것이 사실관계라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사실은 어떤 안에 대한 태도가 문제인데 그 태도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잘 보고해서 그것이 금방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서 그냥 주고 해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 위원	-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 인터넷 밝은 사람들은 자료집이 가든 안 가든 검색만 해보면 설문 조사에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백지상태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 그래서 그냥 아까 시점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저는 이 부분을 행정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전에 자료집하고 같이 가든 사전에 아까 ○○○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런 방법이든 실제 실무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지 실무자 판단을 좀 들어보고 정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 자 그러면 제가 이것부터 정하겠습니다. - 우리 ○○○ 위원님이 다른 의견을 주셔서 그냥 이것은 간단한 문제니까 이렇게 먼저 결정을 짓죠.
○○○ 위원	-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 조사를 먼저 하는 게 백지상태 그리고 3차 조사의 경과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학술적으로는 경과와 변화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거든요. 결론이 중요하거든요. - 그걸 굳이 저는 따로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 행정적인 부분이나 따로 아까 따로 보낸다고 해서 그래서 백지상태에서의 답변 지나고 나서 당일 아침에 해서 얻는 답변이 차이가 크게 의미가 있지 않고 중요하기 않기때문에 복잡하게 가는 것보다는 당일날 이것부터 시작하면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게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시작하는구나. 집중도를 높이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미리 고생을 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 위원	-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2차 조사는 당일날 한다. 이렇게 이 계획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얘기들을 우리 진행하시는 모뎀레이터분들에게 전해주시고 다시 한 번 19일 날 점검할 때 실제처럼 세팅을 해놓고 점검을 꼭 한번, 가정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들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해볼 수 있게, 저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수행기관	- 일단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릴 듯해서 4시는 좀 빠듯할 거 같습니다. 4시 반 정도에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위원장	- 저희가 4시 반 네 좋습니다. 4시 반 그러면 제가 그날 4시 반 오면 제가 이제 19일이죠. -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요일이죠. 19일에 제가 별일이 없습니다, 오겠습니다. - 그러면 우리 저기 위원님들 4시 반에 전일 고등학교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 위원	-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당일날 숙의가 중요하고 이 분들이 스스로 숙의를 했다 내가 궁금한 걸 해소했다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의응답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 숙의야 우리 모뎀레이터들이 알아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그 된 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확히 해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쉬는 시간 10분이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운영하는 측이나 모뎀레이터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 위원	- 2차 조사할 때 궁금한 것들을 그냥 써보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역 수행기관	- 사전에 받아서 할 생각이었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질문 지형이 어디에 있는가 일단 모아서 내려야, 중복해서도 나올 거거든요. - 그거에 대해서 답변 시간이라든지 예상 범위들을 아침에 접수받은 즉시 이렇게 챙기는 게 진행상에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 그 점만 질의응답의 시간 배정 정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과는 관계없는데요. 이게 2층 3층 4층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 정도 있는데 고등학교라고요. 흡연공간이 없을 거예요. - 바깥에다가 임시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만드는 게 좋겠죠.
○○○ 위원	- 원래 학교 안에서는 흡연 불가하죠.
용역 수행기관	- 그리고 또 하나가 남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이 부족할 수 있어서 층별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 좋은 생각이네요. - 하여튼 세심한 것까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관계자	- 학교 방문했을 때 상당히 고지대에 있습니다. - 정문에서부터 교실 공간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는 우선 교문 바로 옆에 공터가 있는데 학교 측에서 100대 조금 넘게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데 그게 그 공터와 교문 통과해서 옆에 조금 약간 잔여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 위원	- 학교운동장을 쓸 수는 없죠?
전주시 관계자	- 거기가 다 잔디로 되있어서 쓸 수 없습니다.
○○○ 위원	- 차 끌고 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통제 좀 해야 해요.
전주시 관계자	- 저희가 안내를 다 할 겁니다.
위원장	- 하나하나 잘 저희 계획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세심한 걸 잘해야 잘했다는 소리 듣습니다. 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얘기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그러면 지난번에 조사 내용을 잠깐 한 번이라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크게 잘 고쳤겠지만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눈으로 한번 보시고 특별한 거가 없는지 그때 수정했죠?
#. 2차, 3차 설문조사 검토	
용역 수행기관	- 그날 나온 얘기는 다 반영해서 수정했습니다..
○○○ 위원	- 저기 차라리 Q5도 있잖아요. - 4분의 1, 4분의 3, 2분의 1 너무 디테일해서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 했고, 그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봤다가 이 내용을 알려고 여러 번 보는 것 하고 한번 보는 것을 보려 하는 것 같은데 너무 4분의 1 이 부분은 번벌적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여러 번 한 번 절반 정도 못 봤다 이 정도가 맞지 않을까
○○○ 위원	- 한 번, 절반 정도, 거의 못 봤다 거의 보지 못했다.
○○○ 위원	- 동영상 배포는 안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 위원	- 자료집 및 동영상 따로 물어볼까요?
○○○ 위원	- 따로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 위원	- 그래요 그러면 따로 하나 물어봅시다. - 좋아요. 동영상에 대한 것도 똑같이 물어보세요. 동영상 만들었으니까
용역 수행기관	- 6번의 신뢰도는 2차 3차 다 묻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 잠깐만 여기에 여러 번, 한번, 절반, 거의 보지 못했다.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질문을 자료집하고 동영상하고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Q5-1 5-2 이렇게 해주는 게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중복 질문으로 볼 수 있거든요
○○○ 위원	- Q5-1과 Q5-2로 이렇게 하죠. - 그러면 다음은 제공된 자료 및 동영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역 수행기관	- 이 파트는 크게 수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 위원	- 긍정적인 걸 먼저 보내자 그런 걸 바꿨죠.
용역 수행기관	- 여기에는 따로 없어요.
위원장	- 여기는 따로 없고 그거는 그러면 3차 조사로 넘어가죠.
용역 수행기관	- 2차는 여기까지고 뒤에는 배경 질문입니다. 앞쪽에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 A, B, C안에 대해서 여기도 동일한 질문이고요.
위원장	- 지난번에 교통 혼잡에 대한 해소방안으로는 어떤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만약 대한방직 부지 지역에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면 지역 상권과의 상생하는 방안으로 어떤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저거 위원님 5가지 기존 상권과의 유사한 업종 제한 그다음에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금 조성, 상업시설의 규모 최소화, 명품 브랜드 위주로 특화, 기타 저 정도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용역 수행기관	- 3차는 그때 조금 논란이 있어서 토지, 현금, 시설 이렇게만 표시했습니다. - 사전 협상제도 그때 마지막에 나왔던 부분을 저렇게 물어보자고 하셔서 1, 2, 3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 위원	- 모니터링이나 점검은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점검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건가요
○○○ 위원	- 모니터링은 시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 저거는 시민들이 모니터링하는 것 아닌가?
○○○ 위원	- 시가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 위원	-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니까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니고 치밀하게 스케줄도 만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될거 같아요.
전주시 관계자	- 그래서 모니터링 절차가 한번 마련되어야 한다. - 시에서도 해야 하고 시민들도 참여가 되어야하는 거 같아요.
○○○ 위원	- 모니터링을 말 말고 점검 절차라고 하면 조금 여러 가지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위원장	- 원래는 모니터링 속에 점검과 평가가 다 들어갑니다.
○○○ 위원	- 이왕에 고치는 김에 말이 되게 하죠. 공공기여, 기부채납 등의 이행에 대한 점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위원장	- 그러니까 그냥 점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저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런데 Q4가 설문 자체가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 귀하께서는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아래 보기에서 참고하여 중요도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해놓고 밑에 가서 또 밑에 중요도 해서 1 2 3 4 5 이게 지금 1 2 3 5 중에서 골라서 중요도를 또 그 밑에다가 표시해달라는 얘기거든요. - 밑에를 중요도를 만약에 정확하게 한다면 중요도 하고 거기다 그냥 빈칸으로 중요도 쓰게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전주시 관계자	- 당구장 표시해서 그 위의 항목을 넣어줘야 할 것 같은데요.
○○○ 위원	- 아래에 보기를 참고하여 그러면 아래가 나와야 해요.
○○○ 위원	- 저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1, 2, 3을 중요도 조사를 하지 않고 1, 2, 3을 검토 내용 이렇게 해서 가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 위원	- 공개되어야 한다, 필요하다, 마련되어야 한다 전부 must예요. - 그러니까 전부 그렇다, 여기서 안중요하다 보면 이상한 관점이에요.
○○○ 위원	- 그러니까 제 질문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끝나고 나서 저희가 권고안을 낼 때 여기서 우리 권고안이 끝나는 게 아니라 권고안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는지 다 알려달라 이 얘기거든요.
위원장	- 저기 아래 내용을 참조해서 중요하다 아니다 저걸 할 건지, 아니면 각 항목에 대해서 중요도를 평가할 건지 생각해 보시죠.
○○○ 위원	- 그게 쉽게 보기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1, 2, 3 하고 중요도 저 뒤에 있는 부분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5점 척도로 넣고요 앞애가 지금 내용이 많아요. - 내용이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글자를 길쭉하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거를 원래대로 풀고 두 줄로 해주면 돼요. - 다음 결과에 대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대한 진행될지 개발 이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 다음에 그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 위원	- 그러면 중요도에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딱 5개를 딱 나눠줘버리면 되죠
위원장	- 그런데 저거 할 때 공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말고 사전협상 제도에 대한 시민 공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 위원	-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협상 제도를 공개하니까 사전협상 과정, 이에 대한 시민들 협상 과정의 시민 공개 이런 식으로 해야할 것 같아요.

○○○ 위원	- 사전협상 과정을 공개하면요 이걸 협상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결과만 해줘야지 과정으로 하면 지금 상대방하고 싸움을 전쟁하고 있는데 공개를 하라 그러면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 위원	- 대부분이 끝나고 나서는 의외로 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 왜냐하면 저대로 안 이루어지면 시민들은 그럼 우리는 뭐 한거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 위원	- 내가 볼 때는 절차 이런 것까지 다 내용으로 하면 안될 거예요. - 사전 협상 제도의 결과에 대한 공개 이런식으로.
○○○ 위원	- 그다음에 용도 변경이라는 말을 써도 되나요.
○○○ 위원	- 용도변경에 대한 점검? 3번 빼면 어때요.
○○○ 위원	- 원래는 그러니까 사업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지 전체적인 틀에서 사업 이행에 관한 부분인데 표현이 좀 어렵고 2번이 들어가버리니까 3번에 2번이 포괄되어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 저는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내려주세요. - 3번 빼고 저기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1 2 3 4 5를 바꿔주세요.
용역 수행기관	- 문항에다 표기하겠습니다.
○○○ 위원	- 3번이 어떤 문항인가 보니 자광이 그 사업 자금이나 이거 안정적으로 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인허가 된 사업을 간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예요.
○○○ 위원	- 1, 2번을 체크하면 당연히 되는거예요.
○○○ 위원	- 민간제안자한테 사업을 밀어주겠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빼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다음 2번에 공공기여 등 사업 이행에 대한 정보를 묻는 것은
위원장	- 그것도 좋습니다. 또 있습니까?
용역 수행기관	- 신뢰도는 동일한 문항이고요. 그리고 6번은 의견이 다를 경우에 존중하겠느냐 이거는 공론화할 때 반드시 묻는 문항입니다. - 그리고 그다음 파트는 똑같습니다. - 마지막 파트는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론화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를 공표했을 때 이런 것들 과정들이 공정했느냐의 문제라서 이거는 질문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 지난번에 넣기로 했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빼기로 하는 거 있었죠. 앞으로 넘어가기로 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용역 수행기관	- 많이 삭제했습니다.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 위원	- Q 18번 만족 문항이 위하고 좀 겁치지 않나요? 어느 정도 공정했다고 봅니까? 이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공론화 과정에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중에 저걸 가지고 그때도 좀 이야기되지 않나요?
위원장	- 저거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 빼기로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물어본 건데 지난번에 빼기로 한 것 같은 이야기 들어서요.
○○○ 위원	- 앞부분이 이것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 저 뒷부분은 빼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 지난번에 빼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설문조사 2, 3차도 완료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 그러면 자료집 마지막으로 오늘 자료집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고생해주셔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 지난번에 공론화 추진 배경뿐만이 아니고 이 시민참여단의 기능과 역할 이런 것도 좀 넣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공론화 추진 배경 및 시민참여단의 역할이라고 했던가. - 시민참여단,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는 시민참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어딘가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 위원	- 페이지 22쪽에 속의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하거든요. - 앞쪽에 자세히 설명한 거잖아요. 간단하게 참여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내 역할 여기에서 무엇인가가 잠깐만 언급이 되는 게 인사말처럼 여러분이 와서 하시는 일들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간단히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아니면 1을 해서 시민참여단의 역할과 모집 과정 이렇게 하던지, 그리고 2해서 공론화 추진의 배경 및 현황 이렇게 앞에 이분들한테 왜 이 시민대표 참여단이 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 위원	- 저는 파트 1 해가지고 쪽 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그 전에 토론회 유의사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뒷면에다가 시민 숙의단, 참여 숙의단의 역할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토의하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도 명확해져야 이게 자료집이 두껍고 내용이 막 파트 1, 2, 3, 4, 5를 그렇게 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찾는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용역 수행기관	- 그러면 이번에 ○○○ 위원님이 따로 동영상 촬영할 때 자료 받은 게 있는데요. 그거를 말씀하신 파트 1 앞에다가 넣을 생각입니다.
○○○ 위원	- 여기에 간략하게 들을 수 있도록 개념이니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용역 수행기관	- 본인이 어떻게 참여해서 뭘 해야 할지를 간단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 위원	- 이것까지. 목차에 들어가야해요. 이것까지 당구 표시를 하든 - 1, 2, 3, 4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앞에 이거까지도 목차에 들어가야해요.
용역 수행기관	- 네 앞쪽에 그러면 사전 번호 부여하지 않고 사전으로 해서 1 앞에 목차에다가 넣기로 하겠습니다.
○○○ 위원	- 1 앞에 목차 1
용역 수행기관	- 별도 목차를 넣고 뒤에다 말씀하신 규칙 다음에 내용을 넣겠습니다.
위원장	- 왜냐하면 이거 1, 2, 3, 4, 5를 바꾸지 않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중 하나가 동영상 촬영할 때 설명하면서 제가 자료집 제5장을 보십시오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용역 수행기관	- 거기에 넣고 목차 앞쪽에다가 본 번호 내기 전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넣겠습니다.
○○○ 위원	- 이분들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3개 시나리오 중에 선택하거나 중요도를 표시하라는 걸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 위원	- 그리고 뭐 어 그런 얘기 어떻게 뽑혔는지도 이야기하시려면 하시고 하여튼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자료들을 한번 봐주시죠.
○○○ 위원	- 자료집 42쪽에 자광의 재무제표가 나오는데요. 기준 시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준 시점 명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 저기 죄송한 얘기지만 모든 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위원	- 과목 옆에 식별이 다 특정돼 있거든요. 출처까지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용역 수행기관	- 각 표마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그다음에 발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사전협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넣어주십사 했던 거 같은데 그게 어디 있나요?
○○○ 위원	- 여기 별책 부록으로 사전협상 제도를 좀 넣어주세요.
○○○ 위원	- 이거는 이미 현재 협상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주시 관계자	- 아직 지침은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라서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요약본 제도에 대한 것만 넣을 순 없습니까?
전주시 관계자	- 지침 만들고 있는 상태라 그걸 넣을 수 없습니다.
○○○ 위원	- 아니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만이라도 넣을 순 없을까요?

○○○ 위원	- 저는 지금 73쪽이요. 기반시설 적절성 및 수용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시설이 있었을 때 예견된 예상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떤 것이 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수록하면 어떨까.
전주시 관계자	- 지금 아직 정확한 사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안이 나오면 안에 따라서 변경 가능성이 있기때문에요.
○○○ 위원	- 이렇게만 넣으세요. 여기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상권이든지 계획이든 환수에 따라서 시나리오 A, B, C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좀 추가해줬으면 좋겠어요. - 그러니까 거기 아래에 각각의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에 미치는 영향 끼칠 수도 있는데 시나리오별로 그 영향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조금 언급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연관 시설 다 똑같습니다. - 그러니까 시나리오 A, B, C에 따라서 영향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만 좀 코멘트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28페이지부터 시나리오 장단점 나오거든요. - 1조, 2조, 3조, 4조 그 구분선이 흐릿해가지고 어느 것이 어느 것 인지를 잘 몰라서요.
용역 수행기관	- 진하게 하겠습니다. 용어정리는 조금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생했고 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Q&A를 통해서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미리 드렸지만 항상 어려워서 살펴볼 시간도 별로 없으시겠지만은 그래도 또 한 번 보시고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오타자 한번 보시죠. - 3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3페이지에 일정 관련 오타자들 한번 보시죠.
○○○ 위원	- 173쪽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가이드 라인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사전 협상 제도가 다 품어버리는 건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이후에 가이드 라인을 확정할 계획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 처음에는 이게 부각이 안 됐을 때 사전 협상 제도라는 게 안 되었을 때 이야기거든요?
위원장	- 조금 더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 오해가 받을 소지들도 있고 하기때문에 나중에 이거 한다고 그래 놓고 왜 안 하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제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책잡히지 않게 좀 해주세요.

전주시 관계자	- 시에서 할 일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할 일을 구분해서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	- 이후에 디테일하게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사전협상 제도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 뭐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설계를 빼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 그리고 이것도 공론화위원회 완료라는 게 공론화위원회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주시 관계자	- 이걸 애매하니까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민참여단의 숫자는 이번 주말까지 결정되죠? - 그리고 23일 전일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정대로 갈 거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주시고 19일날 오후 3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4시 반에 우리 위원님들 가급적 참석해서 같이 점검하는 데 봐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집은 다음 주 초가 되겠죠. 그렇죠. - 이 자료집은 되는 대로 이메일로도 보내고 우편으로도 발송하고 그럴 겁니까? 우편으로는 발송 안 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용역 수행기관	- 발송하게 되면 볼 시간이 아마 우편 가는 데 하루 이틀 정도 걸릴 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메일이 있으면 가급적 이메일하고 이메일 주소가 없는 분들 몇 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 자료집은 인쇄본을 보내줘야지 이메일을 보내면 이걸 화면을 못 보니까 칼라로 출력해서 어떤 형태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게 한 두페이지도 아니고 이메일로 안봐요.
위원장	-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저희가 ○○○ 위원님 말씀 맞으니까 빠른 등기를 해서라도 책자로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메일로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만든 동영상에 관한 것들은 지금 전주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시민대표단 분들도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동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동영상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언론에도 오늘 회의 결과 이런 것들을 하고요. - 그다음에 23일 날 저희들이 언론에 대해서 이 정도는 공개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언론에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 말씀드려서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분담까지 내용은 듣지 않지만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은 취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한다. - 이렇게 언론에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아침에 제가 아침 방송 JTV 이걸 잠깐 하는 걸 봤는데 전주 방송, 공론화위원회에서 숙의 참여단 운영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이런 식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 보도자료를 쓸 때 이 숙의 참여단 대한 역할과 이런 과정과 결론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를 다시 한번 잘 표현을 잘해서 자꾸 이런 게 회자되지 않고 굳이 우리가 5점 척도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는 없는데 표현을 잘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를 고른다, 아직도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요.
○○○ 위원	- 아니 저도 셋 중에 하나 고르시는 거예요? 정하시는거죠? 그래서 절대 아니다. 그걸 누차 크게 강조했어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잘못 나가는데 그러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강조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한쪽으로 흘리는 것 같아.
위원장	- 오늘 이 내용을 가서 브리핑을 한번 하는 게 좋겠습니까?
○○○ 위원	- 보도자료만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공론화 끝나면 브리핑 하시죠.
위원장	- 그럼, 혹시 더 검토할 부분이 있나요? - 저희들 23일 전까지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 다만 19일날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4시 반, 그러면 더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 다들 고생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도와주신 것으로 지금까지는 잘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과 제가 봐도 제가 이런저런 듣는 얘기로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